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정보기술 수용요인에 관한 분석적 연구*

An Analysis on Factors of Information Technology Acceptance of LIS Undergraduate Students

한 승 희(Seunghee Han)**

초 록

이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이 전공자의 정보기술 수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보기술수용모형을 이용하여 두 가지의 이질적인 정보기술환경에서 전공자와 비전공자간, 그리고 전공성숙도별 정보기술 수용에 대한 요인적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문헌정보학 전공자와 비전공자간 정보기술 수용요인은 사회적 특성을 나타내는 주관적 규범 변수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성숙도에 따라 저학년 집단에서는 비전공자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고학년 집단에서는 각 변수의 영향력이 저학년 집단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LIS curriculum affects the undergraduate students' intention to information technology acceptance using Technology Acceptance Model(TAM). For this purpose, it was analyzed differences in factors of information technology acceptance (1) between LIS students and non-LIS students and (2) between LIS junior students and LIS senior students in heterogeneous information technology environm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re is difference in IT acceptance factor(Subjective Norm variables) between LIS students and non-LIS students. There was no great difference in factors on information technology acceptance between LIS junior students and non-LIS students. LIS senior students show great difference in path coefficient with LIS junior students.

키워드: 문헌정보학 교육, 정보기술수용모형, 정보기술, 기술수용, 기술수용요인

LIS Education,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Information Technology, Information Technology Acceptance, Information Technology Acceptance Factors

* 이 논문은 2011년도 한국비블리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며, 2011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조교수(hanshee@swu.ac.kr)

논문접수일자 : 2011년 12월 2일 논문심사일자 : 2011년 12월 3일 게재확정일자 : 2011년 12월 19일

1. 서론

정보기술로 인해 인간은 정보의 처리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었으며, 정보의 처리 능력이 확대되면서 처리 비용까지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정보간의 상호작용의 증대를 통해 정보의 재생산을 자극함으로써 정보의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렇게 정보기술은 정보의 절대량이 증가하는 오늘날의 정보환경에서 인간의 정보처리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인류사회의 패러다임이 지식정보사회로 진화하게 된 원천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문헌정보학 영역의 주변 환경은 더 이상 정보기술과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정보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전 지식뿐만 아니라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개인적 역량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변화는 정보전문직 영역의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헌정보학 교육은 정보환경의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 초점을 두어야 한다(한승희 2008). 지속적으로 변화할 정보기술환경 안에서 정보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보관리 기술 이외에 정보기술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제로 한 정보환경의 변화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하다(Mason 1990; Choo 1998; Griffiths 1998).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기초수학능력으로 정보기술에 대한 수용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헌정보학 교수-학습 현장에서의 경험을 빌어보면, 문헌정보학 전공자 중 일부는 정보기술을 익히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정보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장벽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헌정보학의 교육과정이나 교과 과정을 통해 전공자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정보기술과 친숙하게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정보기술에 대한 두려움 없이 능동적으로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술의 수용이라는 것은 새로운 기술의 확산을 위한 선결조건이기 때문이다(이재신 2006).

이 연구는 현재의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또는 교육과정이 전공자의 정보기술수용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하여 MIS 분야에서 오래 전에 제시된 정보기술수용모형을 이용하여 문헌정보학 전공자와 비전공자, 그리고 저학년 전공자와 고학년 전공자의 정보기술수용에서 나타나는 요인적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현재의 문헌정보학 전공 교과과정 및 교육내용이 전공자의 정보기술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정보기술수용모형

2.1 개념

Davis(1986)는 Fishbein과 Ajzen(1975)이 제시한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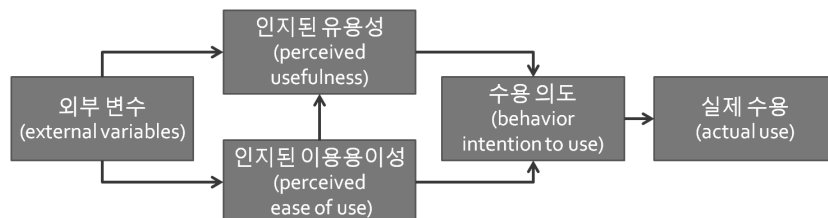
TRA)을 기반으로 하여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이용자의 수용을 모델링하기 위해 정보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이하 TAM)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이용자의 정보기술수용의 결정요인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내적 신념, 태도, 의도에 대한 외적 요인의 영향을 찾아내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Davis, Bagozzi, and Warshaw 1989).

이 모형에서는 정보기술의 수용의도가 기술의 실제 수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정보기술의 수용의도란 정보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용의도가 정보기술 이용에 대한 직접적인 결정요소가 된다고 보고, 정보기술이 이용하기 쉬울수록, 그리고 유용하다고 인지될수록 수용에 대한 이용자의 태도와 의도가 긍정적이게 된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기술의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으로 나눈 후 내부요인이 외부요인을 정보기술의 수용의도로 연결하는 매개변수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림 1>은 TAM에서의 일반화된 요인간 인과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Davis(1986)는 정보기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요인으로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 및 인지된 이용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

of use)을 제시하였는데, 인지된 유용성이란 특정한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과업의 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개인이 믿는 정도, 즉, 정보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용성의 지각 정도를 의미한다. 또한, 인지된 이용용이성이란 특정한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노력이 덜 들어갈 것이라고 믿는 정도, 즉,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데 있어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많은 TAM 연구들에서 두 내부요인 중 인지된 유용성이 이용용이성보다 수용 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김연례, 강혜영 2007).

한편, 외부요인에 대해서는 연구모형에 따라 다양한 외부요인을 설정하여 정보기술 수용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김준우, 문형도(2007)의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MIS 분야 논문 약 50편 중 연구모델에 활용된 외부변수를 분석한 뒤 정보기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뒤, 이를 세 가지, 즉, 시스템 요인, 콘텐츠 요인, 그리고 개인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시스템 요인은 정보기술 특히 정보 시스템이 갖고 있는 내재적 특징으로, 예컨대 시스템 속도, 이용자 인터페이스, 접근성, 이동성 등이 포함된다. 콘텐츠 요인은 정보 시스템으로 구현되는 각종 정보를 의미한다. 정보의 품질, 즉 정확성,



<그림 1> TAM에서의 요인간 인과관계(Davis, Bagozzi, and Warshaw 1989)

충실성, 정보의 구성 체계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특성은 이용자 개인이 차별화될 수 있는 특징으로, 나이, 성별, 지식수준, 정보기술에 대한 친밀도 등을 포함한다. TAM을 이용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정보기술특성에 따라 다양한 외부요인이 이용자의 정보기술에 대한 유용성과 이용용이성 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보기술의 특성에 따라 외부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2 선행 연구

TAM은 오랫동안 정보기술수용에 대한 요인을 설명하기 위한 주요 모형으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수용되어 왔으나,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의 TAM 연구들은 연구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통적인 TAM의 변수 외에 새로운 변수를 추가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Venkatesh and Davis 2000).

Agarwal and Karahanna(2000)는 개인의 혁신성, 즐거움, 인지적 흡수라는 변수를 추가하였고, Luarn and Lin(2005)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신뢰성, 자기효능감, 경제적 비용 등의 변수를, Wu and Wang(2005)은 인지된 위험과 비용의 변수를 추가하였으며, 양희동, 문윤지(2005)는 주관적 규범, 이미지, 가시성, 자발성으로 조작화한 사회적 영향의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TAM을 확장시켰다. 또한 김경규 외(2009)는 모바일 웹 브라우징 서비스의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자

기효능감과 개인의 혁신성과 같은 개인적 요인과 더불어 주관적 규범, 이미지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을 변수로 두었다.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이외에 정보품질 요인을 정보기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 이를 대상으로 정보기술의 수용요인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 Yang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웹 포털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용자의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콘텐츠의 유용성, 정보의 적절성, 사용성, 접근성, 보안, 상호작용 등을 변수로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Tsakonas and Papatheodorou(2006)의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정보서비스의 구성요소에 대한 속성을 분석하기 위해 서비스의 유용성과 사용성을 평가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사용성은 시스템 만족도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유용성은 시스템과 관련된 속성이 아니라 정보 자원의 내용과 관련된 속성으로, 제공되는 정보가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얼마나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요소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이 연구에서는 Davis, Bagozzi, and Warshaw (1989)의 TAM을 이용해 문헌정보학 전공자와 비전공자에 대한 정보기술수용의 요인적 차이와 전공성숙도에 따른 정보기술수용의 요인적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RQ 1] 정보기술 수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문헌정보학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경우 다르게 나타나는가?
- [RQ 2]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경우, 전공성숙도가 정보기술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용용이성은 유용성과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유용성과 이용용이성은 수용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TAM 관련 논문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요인간의 인과관계를 분석, <그림 2>와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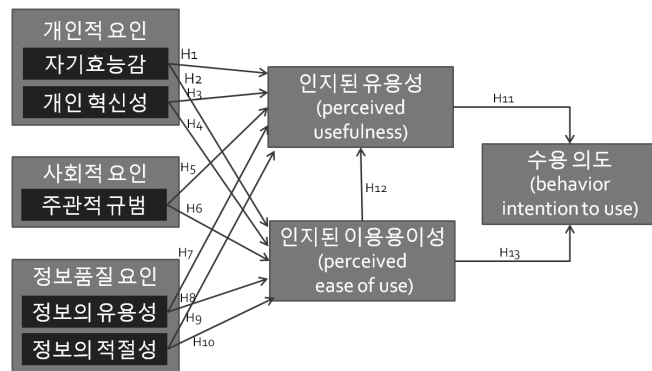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TAM 연구에서와 같이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이용용이성을 내부변수로 두고, 두 내부변수가 정보기술의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매개변수로 설정된 두 내부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으로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정보품질 요인을 두고, 개인적 요인에는 자기효능감과 개인혁신성을, 사회적 요인에는 주관적 규범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품질 요인에는 정보의 유용성과 정보의 적절성을 외부변수로 설정하였다. 자기효능감, 개인혁신성, 주관적 규범, 정보의 유용성, 그리고 정보의 적절성은 외부변수로서 내부변수인 유용성과 이용용이성에 영향을 미치고, 내부변수인

3.2 변수의 정의

내부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해서는 3.1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외부변수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각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표 1>과 같다.

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사회인지이론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개인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행위 절차를 조직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은 정보 시스템 분야에 도입되면서 컴퓨터의 성과나 혹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행변수로 간주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Compeau and



<그림 2> 연구모형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특성		변수명	정의
외부변수	개인적 요인	자기효능감	정보기술에 관련된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 및 자신감
		개인혁신성	정보기술 조작에 관련된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 및 자신감
	사회적 요인	주관적 규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집단 혹은 타인이 정보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정보품질 요인	정보의 유용성	정보에 대해 이용자가 느끼는 가치, 신뢰도, 최신성 및 정확성
정보의 적절성		이용자의 의사결정이나 가치판단에 대한 정보의 완전성의 범위	
내부변수		유용성	정보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용성의 지각 정도
		이용용이성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데 있어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
		수용의도	정보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가능성

Higgins(1995)는 컴퓨터 자기효능감(computer self-efficacy)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컴퓨터 자기효능감이란 컴퓨터를 사용하는 기술 자체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아니라 어떤 과업을 수행하는데 컴퓨터를 사용하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의미한다.

2) 개인혁신성

혁신적 경향이 있는 개인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신제품과 서비스를 경험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개인의 혁신성은 새로운 정보기술을 시도하거나 이를 수용하려는 개인의 경향이나 태도로 정의될 수 있다. 개인의 혁신성은 정보기술 영역에서 새로운 정보기술을 시험해 보려는 개인의 자발적 의지로서 개인에 대한 하나의 특성으로 간주된다. 즉, 혁신성이 높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새로운 정보기술을 먼저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혁신성을 가진 개인은 정보기술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지각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Agarwal and Prasad 1998; 김경규 외 2009).

3)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이란 사회적 요인의 가장 대표적인 변수로, 어떤 개인의 준거가 되는 중요한 개인 및 집단이 자신의 행위와 성과에 대하여 갖게 될 견해에 대해 인지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Fishbein and Ajzen 1975). 즉,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믿는다면 자신도 사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4) 정보의 유용성

정보의 가치, 신뢰성, 최신성, 정확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Yang et al. 2005). 정보의 가치는 정보의 적합성과 명확성과 관련이 깊다. 정보의 신뢰성은 정보의 정확성과 정보에의 의존 가능성과 연관되어 있고, 정보의 최신성은 정보의 시의성과 지속적인 갱신과 연관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정확성은 정보가 오류에서 자유로운 정도를 의미한다.

5) 정보의 적절성

정보의 완전성의 범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용자가 특정한 정보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판단이나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는 장치로서의 정보의 특성을 의미한다(Yang et al. 2005). 이윤정(2009)은 대학도서관 원문복사서비스 이용자의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이 정보공유서비스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지식 및 정보의 획득 정도가 원문복사서비스의 유용성을 인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서비스를 수용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3 연구가설의 설정

3.1에서 제시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 그리고 3.2에서 언급한 변수의 정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1) 개인적 특성 변수와 내부변수와의 관계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인적 특성 변수인 정보기술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개인혁신성은 일반적으로 내부변수인 정보기술에 대한 유용성과 이용용이성 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기술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문헌정보학 전공자와 비전공자간의 개인적 특성 차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 〈H1〉 정보기술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정보기술의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정보기술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정보기술의 이용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술의 이용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정보기술에 대한 개인의 혁신성은 정보기술의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정보기술에 대한 개인의 혁신성은 정보기술의 이용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사회적 특성 변수와 내부변수와의 관계
사회적 특성 변수인 주관적 규범은 이용자가 처한 주변의 사회적 관계 안에서 정보기술에 대한 유용성과 이용용이성을 인지하게 된다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경우 비전공자에 비해 정보기술에 대해 수용해야 한다는 주관적 규범이 강하게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 〈H5〉 정보기술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정보기술의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6〉 정보기술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정보기술의 이용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정보품질 특성과 내부변수와의 관계
본 연구에서 정보품질 요인으로 제시한 정보의 유용성과 적절성을 인지하고 있는 이용자는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보기술을 수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전공자가 비전공자에 비해 정보품질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정보기술에 대한 수용의도가 강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 〈H7〉 정보의 유용성은 정보기술의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8〉 정보의 유용성은 정보기술의 이용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9〉 정보의 적절성은 정보기술의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0〉 정보의 적절성은 정보기술의 이용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내부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

TAM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정보기술에 대한 유용성과 이용용이성은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와 더불어 이용용이성은 유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Davis 1989; Agarwal and Prasad 1999; Venkatesh and Davis 2000; 김준우, 문형도 2007; 김연례, 강혜영 2007; 김경규 외 2009).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내부변수인 유용성과 이용용이성과 종속변수인 수용의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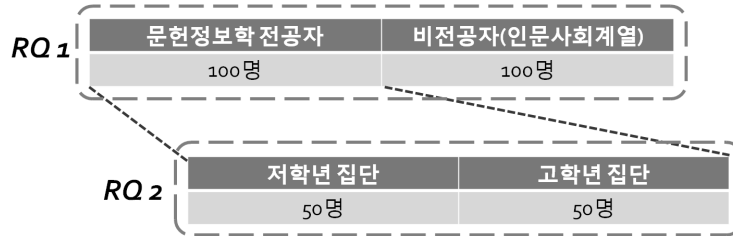
- 〈H11〉 정보기술의 유용성은 정보기술의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2〉 정보기술의 이용용이성은 정보기술의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3〉 정보기술의 이용용이성은 정보기술의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4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3.1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이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정보기술 수용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 관점에서 연구를 설계하였다.

첫째, 앞에서 제시한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정보기술환경에 따라 문헌정보학 전공자와 비전공자간에 정보기술 수용요인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용자가 처한 정보기술환경을 자발적 정보기술환경과 강제적 정보기술환경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자발적 정보기술환경이란 이용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하는 정보기술을 이용하게 되는 환경으로,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정보기술환경을 의미한다. 반면, 강제적 정보기술환경은 과업이나 업무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게 되는 정보기술환경으로, 업무효율성 등을 이유로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정보기술환경을 의미한다(김준우, 문형도 2007). 문헌정보학 전공자가 비전공자와 비교해볼 때 정보기술환경에 따라 정보기술에 대해 어떠한 수용요인과 수용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발적 정보기술환경과 강제적 정보기술환경에서 전공자와 비전공자간 정보기술 수용요인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발적 정보기술환경을 인터넷 이용 환경으로, 그리고 강제적 정보기술환경을 도서관 DB 검색 환경으로 가정한 후 각각의 정보기술환경에서 문헌정보학 전공자와 비전공자간 정보기술 수용요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 앞에서 제시한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그림 3〉 표본의 구성

전공지식에의 노출 기간에 따라 정보기술 수용요인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전공자의 표본 집단을 저학년과 고학년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설계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S여대에 재학 중인 학부생 200명을 대상으로 2011년 6월 한 달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은 정보기술수용에 있어 앞에서 제시한 변수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참조하여 총 3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리커트 5점 척도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표본의 구성은 〈그림 3〉과 같다. 먼저 연구문제 1에 해당하는 문헌정보학 전공과 비전공자간의 정보기술 수용요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문헌정보학 전공자 100명과 비전공자 100명을 표본으로 구성하였다. 비전공자의 경우에는 문헌정보학 전공자와 정보기술에 대한 친숙도가 유사한 집단인 인문사회계열 학생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연구문제 2에 해당하는 전공성숙도에 따른 정보기술 수용요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100명의 문헌정보학 전공자 집단을 저학년 집단(1~2학년)과 고학년 집단(3~4학년) 각각 50명씩으로 구성하였다.

4. 연구결과의 분석

4.1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변수에 대한 신뢰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수를 한 묶음으로 간주하여 그 중에서 하나의 항목을 제거했을 경우에 나머지 항목들이 갖게 되는 통계량을 측정하였다. 이 때 통계량은 Cronbach's α 통계량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값이 0.6 이상 일 때 변수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변수는 〈표 2〉와 같이 모두 0.7 이상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성 검증 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변수를 활용하여 AMOS를 이용,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수행하였다. 경로분석은 기본적으로 변수간의 선형관계를 분해하고 이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회귀분석에서 하나의 그룹으로 다루어지던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 간에 인과관계가 설정되고, 설정된 인과적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여러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특정화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다(김두섭 1994). 즉 변수간의 연결관계 및 인과관계가 가정, 검증됨으로써 변수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설명해주는 통계적 기법이라 할 수 있다.

〈표 2〉 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결과

변수명	측정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Cronbach α
자기효능감	5	0.989	0.545	0.726
개인혁신성	5	0.827	0.527	0.875
주관적 규범	4	0.968	0.582	0.792
정보의 유용성	4	0.849	0.502	0.787
정보의 적절성	5	0.912	0.579	0.701
유용성	4	0.949	0.632	0.732
이용용이성	4	0.899	0.685	0.798
수용의도	5	0.887	0.599	0.8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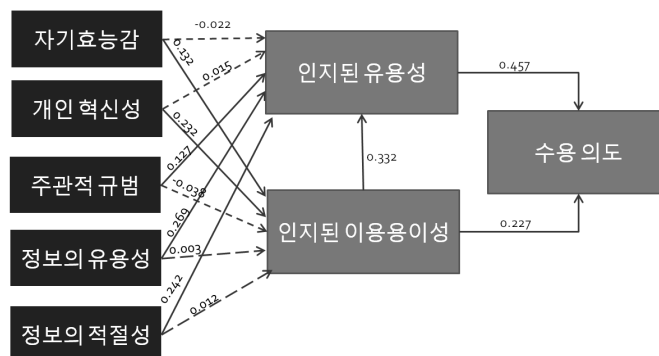
4.2 정보기술환경별 분석

4.2.1 자발적 정보기술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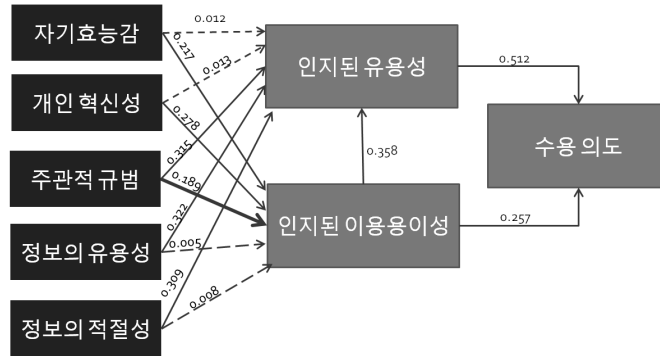
비전공자와 전공자를 대상으로 각각 자발적 정보기술환경에서의 정보기술 수용요인에 대해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4〉, 〈그림 5〉와 같다. 먼저 전공자와 비전공자간에 나타난 공통된 특성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과 개인혁신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은 정보기술에 대한 이용용이성 인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유용성 인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보품질 특성인 정보의 유용성과 정보의

적절성은 이용자가 정보기술의 유용성을 인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으나, 반대로 정보기술에 대한 이용용이성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보기술의 이용을 쉽게 여기거나 그렇지 않은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용자의 개인적 특성에 기인하지만, 정보기술의 유용함을 인지하는 것에는 이용자의 개인적 특성보다는 정보품질 특성이 더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보품질이 정보기술의 유용성 인지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용성, 이용용이성, 수용의도 간의 관



〈그림 4〉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1: 자발적 정보기술환경에서의 비전공자의 경우



〈그림 5〉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II: 자발적 정보기술환경에서의 전공자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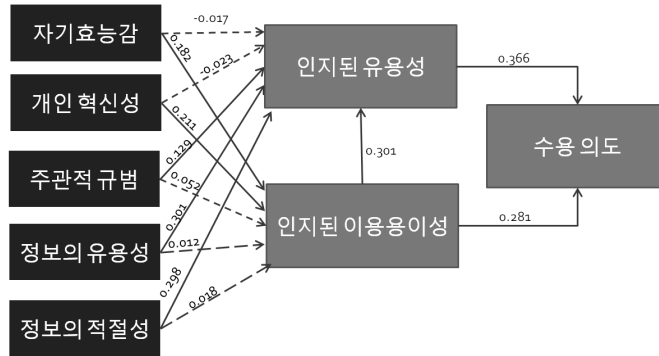
계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정보기술의 이용이 용이하면 그 기술이 유용하다고 인지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이용용이성 보다는 유용성이 정보기술의 수용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자발적 정보기술환경에서 전공자와 비전공자간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사회적 특성 변수에서 나타난다. 비전공자의 경우 주관적 규범 변수가 정보기술의 유용성 인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정보기술의 이용용이성 인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공자의 경우 유용성과 이용용이성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문헌정보학 전공자로서 정보기술과 친숙해야 하고 정보기술의 유용성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주관적 규범이 문헌정보학 전공자 사이에서 비전공자에 비해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가능하다. 이러한 차이점 외에도 전공자의 경우 비전공자에 비해 거의 모든 요인에서 표준화된 경로계수 값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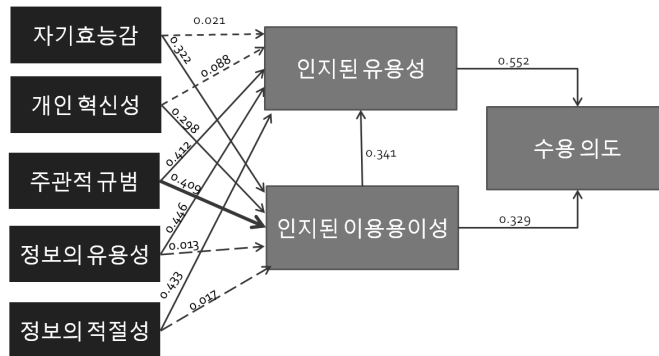
공자에 비해 전공자의 경우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비전공자에 비해 전공자 집단이 변수간 관계에서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4.2.2 강제적 정보기술환경

비전공자와 전공자를 대상으로 각각 강제적 정보기술환경에서의 정보기술 수용요인에 대해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6〉, 〈그림 7〉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두 모형의 경로분석결과는 자발적 정보기술환경에서의 결과와 유사하다. 정보기술환경이 바뀌어도 마찬가지로 개인적 특성은 이용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정보품질특성은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특성인 주관적 규범 변수의 경우에도 자발적 정보기술환경에서의 결과와 동일하게 전공자의 경우에서 유용성과 이용용이성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정보기술환경이 바뀌어도 변수적 특성간의 인과관계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6〉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III: 강제적 정보기술환경에서의 비전공자의 경우



〈그림 7〉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IV: 강제적 정보기술환경에서의 전공자의 경우

다만, 두 분석결과를 비교해보면, 비전공자에 비해 전공자가 거의 모든 변수에서 더 큰 경로계수 값을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강제적 정보기술환경에서 비전공자에 비해 전공자가 요인간에 더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학술 데이터베이스 탐색 환경으로 제한한 강제적 정보기술환경에서 비전공자에 비해 전공자가 정보기술의 유용성과 이용용이성을 인지하고 수용하려는 의도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즉, 문헌정보학 전공자는 비전공자에 비해 개인적 특성, 사회적 특성, 그리고 정보품질 특성에서 비전공자

에 비해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탐색 환경에서 정보기술의 이용이 용이하고 유용하다고 느끼며,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수용의도를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자발적 정보기술환경에서의 분석 결과와 더불어 정보기술환경의 변화에 관계없이 문헌정보학의 교육과정이 전공자로 하여금 정보기술수용에 대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강제적 정보기술환경의 경우 경로간 통계적 유의성이 자발적 정보기술환경보다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3 전공성숙도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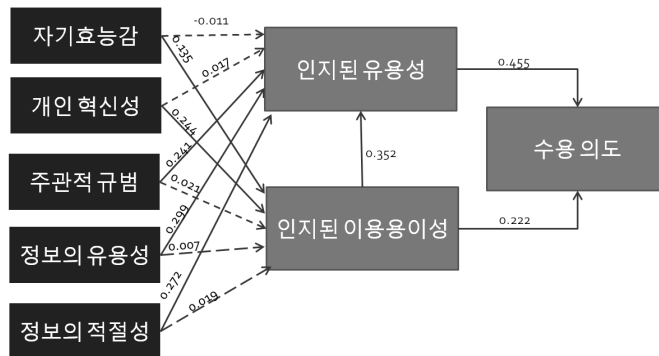
4.3.1 자발적 정보기술환경

연구표본 중 100명의 문헌정보학 전공자를 분리하여 전공성숙도별 정보기술 수용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전공자 100명을 대상으로 먼저 자발적 정보기술환경에서의 정보기술 수용요인에 대해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8>, <그림 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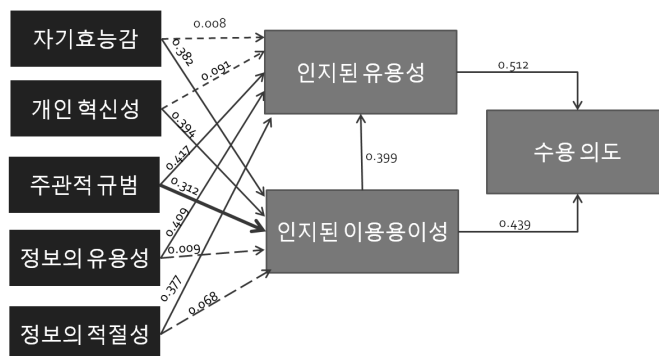
먼저, 자발적 정보기술환경에서 저학년 집단의 경로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자발적 정보기술환경에서의 비전공자의 경우(그림 4)와 큰

차이 없이 요인간 인과관계가 도출되었다. 저학년의 경우 고학년 집단과 달리 사회적 특성인 주관적 규범과 이용용이성과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것은 전공자라고 하더라도 저학년에는 전공자로서의 정보기술수용에 대해 그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저학년 집단과 고학년 집단의 경로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저학년 집단은 달리 고학년 집단의 경우 자발적 정보기술환경에서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그림 5)와 같이 주관적 규범 요인이 이용용이성에 있어 통계적 유의



<그림 8>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V: 자발적 정보기술환경에서의 저학년 전공자의 경우



<그림 9>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VI: 자발적 정보기술환경에서의 고학년 전공자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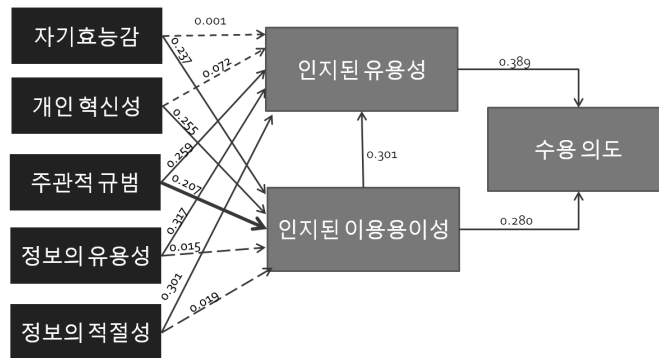
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저학년 집단에서와 반대의 상황으로, 전공에의 노출기간이 길어지고 전공지식에 대한 성숙도가 커질수록 정보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정보기술 수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정보기술에 대한 이용용이성에 대해 인지하게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문헌정보학의 교육과정이 전공자의 정보기술수용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고학년 집단의 경우 모든 요인에서 경로계수 값이 저학년 집단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것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공자의 개인적 특성, 사회적 특성, 정보품질 특성이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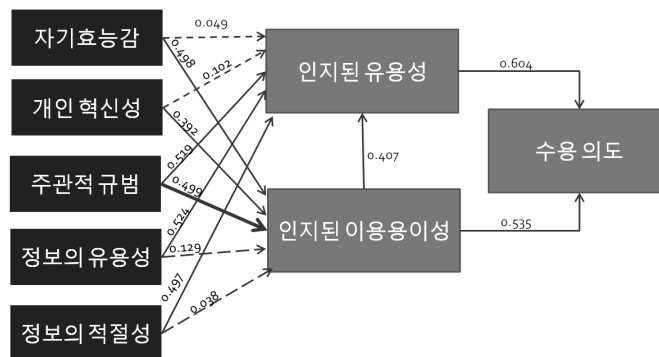
보기술의 유용성과 이용용이성 인지에 적합하도록 긍정적으로 변화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보기술에 대해 긍정적인 수용의도를 갖게 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4.3.2 강제적 정보기술환경

강제적 정보기술환경에서 전공자 저학년 집단과 고학년 집단의 경로분석 결과는 <그림 10>, <그림 11>과 같다. 먼저 저학년 집단과 고학년 집단 모두 강제적 정보기술환경에서 전공자 집단이 보여준 요인간 인과관계와 동일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발적 정보기술환경에서와 마찬가지로 고학년 집단이 저학년 집단



<그림 10>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VII: 강제적 정보기술환경에서의 저학년 전공자의 경우



<그림 11>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VIII: 강제적 정보기술환경에서의 고학년 전공자의 경우

부터 먼저 살펴보면, 개인적 특성인 자기효능감과 개인의 혁신성 그리고 유용성과 이용용이성의 관계에서 설정된 가설 <H1>과 <H3>은 기각되었고, <H2>와 <H4>는 채택되었는데, 이것은 정보기술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개인의 혁신성이 있는 경우 이용자가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인지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정보기술이 유용하다고 인지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의 품질특성과 관련된 정보의 유용성과 적절성 그리고 유용성과 이용용이성의 관계에서 설정된 가설 <H7>과 <H9>는 채택되었고, 반면 <H8>과 <H10>은 기각되었는데, 이것은 정보의 유용성과 적절성이 정보기술의 유용성을 인지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정보기술의 이용용이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유용성, 이용용이성과 수용의도의 관계에서 설정된 가설 <H11>, <H12>, <H13>의 경우 모두 채택되었는데, 이것은 정보기술이 유용하고 이용이 용이하다고 인지할수록 이용자들은 정보기술을 수용하려는 강한 의도를 가지게 되며, 정보기술에 대해 이용이 용이하다고 인지할수록 정보기술을 유용하게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검증의 결과는 기존의 TAM 연구에서 이 세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한 대부분의 결과와 일치한다.

정보기술환경과 문헌정보학 전공여부에 따라 검증결과가 달라진 가설 <H6>은 주관적 규범 그리고 유용성과 이용용이성의 관계에서 설정된 가설이다. 자발적 정보기술환경의 경우 전공자 전체와 전공자 고학년 집단에 대해서는 가설이 채택되었으나 비전공자와 전공자 저학년

집단에 대해서는 기각되었으며, 강제적 정보기술환경의 경우에는 전공자 관련 집단에서는 모두 채택되었으나 비전공자 집단에서는 기각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주관적 규범 변수는 전공자와 비전공자간, 그리고 전공성속도별로 정보기술수용에 대한 요인적 차이를 가장 두드러지게 하는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헌정보학 전공자가 비전공자에 비해, 그리고 전공자 중에서도 고학년 전공자가 저학년 전공자 집단에 비해 정보기술에 대한 유용성과 이용용이성을 보다 잘 인지하고 이것이 결국 정보기술의 수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낸 것은 바로 비전공자에 비해 문헌정보학 전공자가, 그리고 저학년 전공자보다 고학년 전공자가 정보기술 수용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지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문헌정보학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이 전공자에 대한 정보기술 수용의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5. 결론 및 제언

기술수용모형에 대한 연구의 목적은 정보기술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과 이용도를 높여 정보기술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Davis, Bagozzi, and Warshaw(1989)의 TAM을 이용하여 문헌정보학의 교육과정이 전공자의 정보기술 수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공자와 비전공자간에 정보기술수용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자발적이고 강제적인 두 가

지의 이질적인 정보기술환경에서 표본집단을 전공자와 비전공자로 나누어 두 집단의 정보기술수용에 대한 요인적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공성숙도에 따라 이질적인 정보기술환경에서 정보기술수용에 대한 요인적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전공자 집단을 저학년과 고학년 집단으로 나누어 두 집단에서 나타나는 요인들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보기술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을 개인적 특성, 사회적 특성, 정보품질 특성으로 구분하고, 개인적 특성에 대해서는 자기효능감과 개인의 혁신성을, 사회적 특성에 대해서는 주관적 규범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품질 특성에 대해서는 정보의 유용성과 적절성을 외부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외부변수와 유용성 및 이용용이성으로 표현되는 내부변수, 그리고 종속변수인 수용의도 간의 관계를 경로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적 규범 변수를 제외하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모형은 문헌정보학 전공자와 비전공자간 큰 차이 없이 정보기술 수용요인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거의 모든 분석 조건에서 전공자가 비전공자에 비해 경로계수의 값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효능감, 개인의 혁신성과 같은 개인적 요인은 정보기술의 유용성과, 그리고 정보의 유용성 및 적절성과 같은 정보품질 요인은 정보기술의 이용용이성과 통계적 유의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정보기술수용에 대한 요인들의 차이는 주관적 규범 변수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문헌정보학 전공자로서 정보기술수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비전공자에 비해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공자 집단에 대한 주관적 규범 변수의 영향력은 두 가지의 이질적 정보기술환경에서 모두 나타났는데, 이것은 전공자들이 정보기술의 적용범위를 전공자 관점에서 강제적 정보기술영역이라 할 수 있는 도서관 관련 정보기술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양한 정보환경으로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이 도서관 관련 정보환경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

넷째, 정보품질 요인인 정보의 유용성과 정보의 적절성 변수는 전공자와 비전공자 모두 내부변수인 유용성 및 이용용이성과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으나, 전공자가 비전공자에 비해 높은 경로계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공자가 비전공자에 비해 정보품질에 대해 잘 판단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공자 집단에 대한 정보품질 관련 변수의 영향력은 자발적 정보기술환경에서 보다 강제적 정보기술환경에서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는데, 이것은 전공자 집단이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탐색에 대한 자신감과 정보품질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전공성숙도에 따른 정보기술 수용요인은 저학년 집단의 경우 각 변수의 영향력이 주관적 규범 변수를 제외하고는 비전공자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년 집단의 경우 각 변수의 영향력이 저학년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전공의 교과과정이나 교육내용에 대한 노출시간에 비

례하여 정보기술에 대한 수용의도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전공성숙도가 높을수록 모든 요인에 대해 경로계수 값이 증가했다는 것은 현재의 문헌정보학 교과과정과 교육내용이 전공자로 하여금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정보기술을 수용하도록 긍정적으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앞에서 제시한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에 대하여, 문헌정보학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경우 정보기술 수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다르게 나타난 것은 사회적 요인 중 주관적 규범 변수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요인들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문제 2에 대하여, 전공성숙도별 정보기술 수용요인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요인 중 주관적 규범 변수 외에 나머지 요인들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학년의 경우 자발적 정보기술환경에서는 주관적 규범 변수가 정보기술의 이용용이성 인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강제적 정보기술환경에서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학년의 경우에는 정보기술환경에 관계없이 주관적 규범 변수가 정보기술의 유용성 및 이용용이성과 통계적 유의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표본이 한정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명의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성별이라는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는 기존의 TAM 연구에서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변수 중 하나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정보

기술수용에 있어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리하다는 통념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자발적 정보기술환경을 인터넷 이용이라는 범위로 제한하였다. 그러므로 자발적 정보기술환경을 다른 유형의 기술로 정의했을 때 연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셋째, 외부변수의 통제에 대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변수 간의 영향력과 그들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개인적 요인이 사회적 요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적 요인 역시 개인적 요인이나 정보품질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매개변수인 내부변수를 거치지 않고 외부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상적인 가설설정 환경에서는 외부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검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TAM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볼 때 외부변수가 종속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에 대한 검증과정을 생략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정보환경이 급변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이상적인 문헌정보학의 교육과정이란 정보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하는 정보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정보기술 수용요인을 최초로 분석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를 제안할 수 있다. 먼저, 특정 교과목의 과정 전체 혹은 재학기간의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기술 수용요인의 변화를 분석하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문

헌정보학 전공자의 정보기술수용모형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이 전공자의 정보기술수용능력을 얼마만큼 향상시키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연구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미래지향적 교과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유용한 시도가 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경규, 류성렬, 김문오, 김효진. 2009. 모바일 웹 브라우징 서비스의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영향. 『JITAM』, 16(1): 149-168.
- 김두섭. 1994. 『(사회과학을 위한) 회귀분석』. 서울: 法文社.
- 김연례, 강혜영. 2007. 대학도서관의 웹 기반 정보활용능력 교육 수용요인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4): 117-144.
- 김준우, 문형도. 2007. 이질적인 정보기술 사용 환경 하에서의 기술수용모델(TAM)에 대한 연구. 『JITAM』, 14(4): 175-198.
- 박순창, 정경수, 이재록. 2000. 인터넷의 수용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영학연구』, 29(4): 885-909.
- 신애리. 2009. 『u-서비스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수도권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제사무학과.
- 양희동, 문윤지. 2005. 정보기술 수용에 있어서 사용자 특성과 정보기술 특성에 따른 사회적 영향의 차이. 『경영정보학연구』, 15(2): 97-120.
- 이윤정. 2009. 『대학도서관 원문복사서비스 사용자의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이 정보공유서비스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이재신. 2006. 기술사용에 대한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종단적 연구: 개인의 주관적 판단과 사회적 영향을 중심으로. 『韓國言論學報』, 50(6): 388-414.
- 한승희. 2008. 문헌정보학 교육에서 프로젝트 중심 학습법이 학생의 문제해결능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사례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3): 81-101.
- Agarwal, Ritu, and Jayesh Prasad. 1998. "A Conceptual and Operational Definition of Personal Innovativeness in the Domain of Information Technology."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9(2): 204-215.
- _____. 1999. "Are Individual Differences Germane to the Acceptance of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Decision Sciences*, 30(2): 361-391.

- Agarwal, Ritu, and Elena Karahanna. 2000. "Time Flies When You're Having Fun: Cognitive Absorption and Beliefs about Information Technology Usage." *MIS Quarterly*, 24(4): 665-694.
- Choo, W. C. 1998. *The Knowing Organization, How Organization Use Information to Construct Meaning, Create Knowledge, and Make Decisions*. London: The Oxford University Press.
- Davis, Fred D. 1986.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MIS Quarterly*, 13(3): 319-340.
- Davis, Fred D., Richard P. Bagozzi, and Paul R. Warshaw. 1989. "User Acceptance of Computer Technology: A Comparison of Two Theoretical Models." *Management Science*, 35(8): 982-1003.
- Fishbein, M., and I. Ajzen.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MA: Addison-Wesley.
- Griffiths, J. M. 1998. "The New Information Professional." *Bulletin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24(30): 8-12.
- Luarn, Pin, and Hsin-Hui Lin. 2005.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 Behavioral Intention to Use Mobile Banking."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1(6): 873-891.
- Mason, Richard O. 1990. "What is Information Professional?"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1(2): 122-137.
- Tsakonas, Giannis, and Christos Papatheodorou. 2006. "Analysing and Evaluating Usefulness and Usability in electronic Information Services."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32(5): 400-419.
- Venkatesh, Viswanath, and Fred D. Davis. 2000. "A Theoretical Extension of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Four Longitudinal Field Studies." *Management Science*, 46(2): 186-204.
- Wu, Jen-Her, and Shu-Ching Wang. 2005. "What Drives Mobile Commerce?: An Empirical Evaluation of the Revis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Information & Management*, 42: 719-729.
- Yang, Zhilin, Shao Cai, Zheng Zhou, and Nan Zhou. 200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strument to Measure User Perceived Service Quality of Information Presenting Web Portals." *Information & Management*, 42: 575-589.